

공모전 활용 사례

사람을 놓치지 않는 AI PLAYGROUND

대화량을 세는 자동화에서, 함께 해낸 성과를 발견하는 자동화로

“사람 수가 많은 방보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방.”

오픈카톡 운영자가 직접 만들고 실제 운영에 적용한 커뮤니티 관리 자동화

제출본 | 2026. 09.

개인정보·참여자 식별정보 비공개

AI를 “아는 사람”보다, 서로의 일을 바꾸는 사람이 만나도록

운영자인 나는 본업을 지키면서 AI를 직접 배우고, 콘텐츠와 자동화를 하나씩 만들어 왔다.

혼자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가장 절실했던 것은 정답지가 아니라 “직접 해본 사람의 다음 한마디”였다.

01

다른 직업, 다른 활용법

같은 AI라도 직업과 목표가 다르면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

02

정보보다 실행 경험

링크를 모으는 방이 아니라, 질문·실행·결과를 나누는 공간을 원했다.

03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장

초보도 작은 결과를 꺼내놓고,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출발점이 되는 방.

운영 원칙

“계속 정보만 받아가는 방”이 아니라, 각자 해본 것 하나가 다른 멤버에게 도움이 되는 PLAYGROUND.

사람이 늘수록, 운영자는 오히려 사람을 놓치기 쉬워졌다

흩어진 신호

입장, 퇴장, 닉네임 변경, 자기소개, 대화가 긴 로그 속에 섞였다.

기억에 의존

누가 처음 왔는지, 누가 오래 조용했는지 수작업으로 기억해야 했다.

잘못된 낙인 위험

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미활동으로 단정하면 신규·퇴장·눈팅 멤버를 오판한다.

운영 피로

집계와 공지 작성에 시간이 들수록 정작 대화와 도움에 쓸 에너지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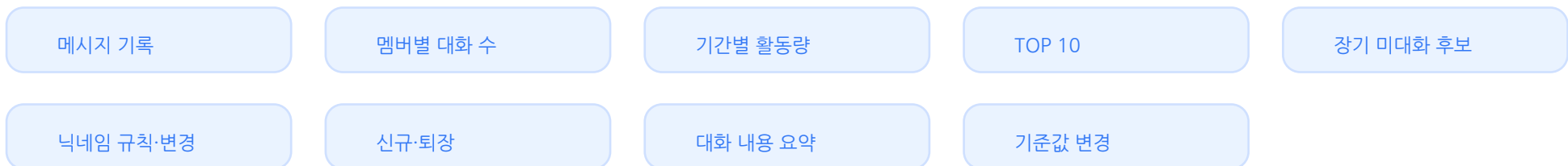
핵심 질문

“누가 말을 적게 했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를 어떻게 정확히 찾을 것인가.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 구조화 → 통계 → AI 요약 → 공유용 리포트



실제 구현·검증 기능



2026. 09. 02 - 09. 16 | 자동 생성된 전체 활동 리포트

413

기간 메시지

47명

활동 멤버

26명

신규 입장

2명

퇴장

AI PLAYGROUND 전체 활동 리포트

기간 요약

기간	09.02 - 09.16
메시지	413건
활동	47명
신규 / 퇴장	26명 / 2명
출력	TOP10 · 신규 · 미활동 · 퇴장 · 요약

증빙 처리 원칙

- 실행 결과 수치는 원문 그대로
- 닉네임·직업·대화 내용 삭제
- 화면은 제출용으로 재구성
- 미활동자는 “후보”로만 표시
- 신규 멤버는 적응 유예 적용

※ 위 패널은 실제 출력 수치와 항목을 익명화해 재구성한 증빙 화면입니다.

완성품을 한 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운영 중 생긴 오류를 규칙으로 바꿨다



관리의 목적이 “감시”에서 “참여의 계기 만들기”로 바뀌었다

1,149 → 1,712

서로 다른 시점의 대화 내보내기에서 확인된 누적 메시지 규모

69 → 79

확인된 발화자 수 변화

운영 시간 절감

긴 로그를 다시 읽지 않고 기간별 핵심을 즉시 확인

투명한 운영

활동 기준과 현황을 카톡용 리포트로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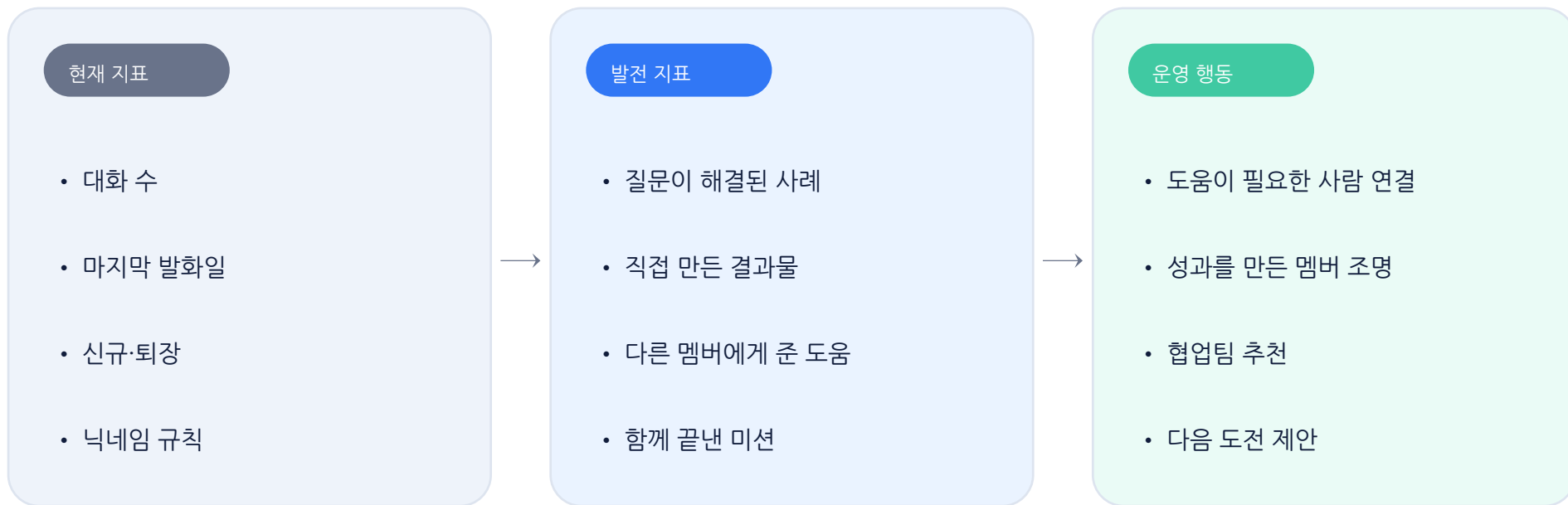
배려 있는 판단

신규 유예와 “후보” 표시로 성급한 퇴장 판단 방지

대화의 질 개선

질문·경험·직접 해본 결과를 참여로 인정

말을 많이 한 사람만 보이는 지표를 넘어, 조용한 기여까지 발견한다



최종 목표

AI가 “누가 조용했는지” 보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누가 무엇을 시도했고 누구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발견하게 한다.

자동화의 목적은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AI PLAYGROUND는 지금도 완성 중입니다.

운영 중 발견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기준을 고치고, 다시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대화량보다 실행·도움·협업·완주를 발견하여, 구성원 각자의 작은 성과가
다음 사람의 시작이 되는 커뮤니티 운영 자동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람 수보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방.